

## 한국의 인구집단별 실업률 격차의 구조와 변화

김혜원\*

한국의 실업률은 여타 OECD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고 이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성별, 학력별, 연령별 인구집단으로 세분하여 실업률의 차이 및 실업률의 구조를 비교한 분석은 그리 많지 않다. 인구집단을 세분하여 비교해 보는 것은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에 도움을 줄 것이다.

연령집단은 크게 15~24세의 청년, 25~49세의 장년, 50~64세의 중고령으로 구분하였다.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Cohen et al.(1997)에서는 네 개의 교육수준을 구분하고 있는데, 낮은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중퇴자 이하, 중간 교육수준은 고졸자, 높은 교육수준은 대학 중퇴자 이하, 매우 높은 교육수준은 4년제 대졸자 이상에 해당한다. Saint-Paul(2000)에서는 중간과 높은 교육수준을 합쳐서 세 개의 수준으로 분석하였다. 본 분석에서도 이를 따라 전문대 졸업자를 고졸자의 범주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노동력 구성에 있어서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에 의해 청년층의 비중이 줄어들고 중고령층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년층 비중의 감소에는 고학력화도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은 고학력자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다. <표 1>과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2006년 현재 대졸자 비중이 24% 수준으로서 미국의 23%와 거의 비슷하다. 25~49세 장년층의 대졸자 비중이 30%에 육박하여 미국의 28%보다 높다. 하지만 50~64세의 중고령층의 경우 12%로서 미국의 22% 수준에 비교하면 크게 낮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고학력화가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중고령자의 대졸 비중이 장년층의 대졸 비중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이후 고학력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중고령자의 대졸 비중이 장년층의 대졸 비중의 1/3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

남성 실업률을 연령별, 학력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자. <표 3>에서 보듯이 학력수준에 따른 실업률의 차이에 있어서 구조적인 변화가 지난 20년 사이에 나타났다. 핵심노동력인 장년층 남성을 살펴보면 1986년, 1996년에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높았지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hwkim@kli.re.kr).

〈표 1〉 노동력 구성의 추이

(단위 : %)

연령	교육수준	1986	1996	2006
전 체	중졸 이하	54.82	34.13	20.17
	고졸	36.37	51.05	55.51
	대졸 이상	8.81	14.82	24.32
15~24세	중졸 이하	35.94	8.96	5.45
	고졸	60.24	84.82	82.66
	대졸 이상	3.83	6.21	11.89
	소 계	16.71	12.63	8.02
25~49세	중졸 이하	52.91	28.60	10.97
	고졸	36.36	53.12	59.34
	대졸 이상	10.73	18.28	29.69
	소 계	66.04	67.56	69.73
50~64세	중졸 이하	80.43	69.04	54.28
	고졸	13.29	22.46	33.74
	대졸 이상	6.28	8.50	11.98
	소 계	17.25	19.80	22.2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2〉 프랑스, 미국, 스페인의 노동력 구성 비교

(단위 : %)

연령	교육수준	프랑스	미국	스페인
전 체	중졸 이하	35.9	16.7	45.0
	고졸	48.1	60.1	45.0
	대졸 이상	15.7	23.0	10.0
15~24세	중졸 이하	32.5	29.2	11.0
	고졸	60.0	63.1	83.0
	대졸 이상	7.4	7.7	6.0
25~49세	중졸 이하	30.6	11.6	41.0
	고졸	51.0	60.6	45.0
	대졸 이상	18.5	27.7	14.0
50~64세	중졸 이하	58.0	22.8	83.0
	고졸	31.6	55.4	12.0
	대졸 이상	10.4	21.7	5.0

자료 : Saint-Paul(2000).

만, 2006년에는 중졸 이하자의 실업률이 가장 높고 고졸, 대졸 이상으로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년층과 중고령층에서도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와 비슷한 방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다른 패턴이 나타난다. 남성 청년층의 경우 2006년 기준으로 볼 때 고졸자의

〈표 3〉 남성의 연령별, 학력별 실업률 추이

(단위 : %)

연령	교육수준	1986	1996	2006
전 체	중졸 이하	3.80	1.63	3.94
	고졸	6.15	2.81	4.61
	대졸 이상	5.80	2.21	2.77
15~24세	중졸 이하	8.01	8.94	13.71
	고졸	14.72	7.95	11.40
	대졸 이상	30.24	14.59	14.00
25~49세	중졸 이하	3.82	1.59	4.91
	고졸	4.72	2.15	4.28
	대졸 이상	5.68	2.35	2.79
50~64세	중졸 이하	1.89	0.88	2.92
	고졸	3.20	1.62	2.75
	대졸 이상	2.17	0.46	2.2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실업률이 가장 낮고 중졸 이하 또는 대졸 이상의 실업률이 더 높다. 장년층이나 중고령층의 경우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일관되게 낮다. 이에 비해 20여년 전에는 장년층 이하에서는 고학력자의 실업률이 저학력보다 높았으며 중고령층에서만 고학력자의 실업률이 더 낮았다.

여성의 실업률은 <표 4>에 제시되어 있는데, 학력수준과 실업률의 관계는 남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장년층 여성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1986년에는 고학력자일수록 실업률이 더 높지만 2006년에는 대졸자의 실업률이 고졸자에 비해 낮아졌다. 다만 여성의 경

〈표 4〉 여성의 연령별, 학력별 실업률 추이

(단위 : %)

연령	교육수준	1986	1996	2006
전 체	중졸 이하	0.74	0.74	1.83
	고졸	4.52	2.33	3.62
	대졸 이상	8.77	2.38	3.43
15~24세	중졸 이하	2.34	7.56	10.66
	고졸	7.21	4.50	8.14
	대졸 이상	23.50	6.51	12.30
25~49세	중졸 이하	0.68	0.72	2.10
	고졸	1.35	1.17	2.82
	대졸 이상	2.16	1.54	2.43
50~64세	중졸 이하	0.21	0.39	1.39
	고졸	0.55	0.41	1.50
	대졸 이상	0.00	0.32	0.7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우 중졸 이하자의 실업률이 여전히 고졸자에 비해 낮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연령수준과 실업률의 관계 역시 남성과 유사하다.

청년기는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탐색하는 시기이고 상대적으로 숙련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발적인 이유에서나 비자발적인 이유에서 상대적으로 직장을 이직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노동시장으로 오랫동안 이탈할 경우 미래의 기대수입이 크게 하락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직장탐색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은 편이며, 중고령층의 경우 건강상의 이유에서나 은퇴 가능성을 감안할 때 능력과 의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이들의 경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실업률이 낮게 나타난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이론적 예측과 일관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표 3>과 <표 4>에서 본 바와 같이 연령대별 실업률의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실업률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년 실업률에서 장년 실업률을 차감한 값을 학력별로 비교한 것인 <표 5>이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실업률의 차이는 더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프랑스와 미국의 경우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반대로 청년과 장년의 실업률 차이는 줄어들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청년과 장년의 실업률 격차가 커지고 있다.

<표 5> 청년 실업률과 장년 실업률의 비교

(단위 : %)

		차 이			비 율		
		1986	1996	2006	1986	1996	2006
남성	중졸 이하	4.19	7.35	8.80	2.10	5.62	2.79
	고졸	10.01	5.80	7.12	3.12	3.70	2.66
	대졸 이상	24.56	12.25	11.20	5.32	6.22	5.01
여성	중졸 이하	1.66	6.84	8.56	3.46	10.54	5.07
	고졸	5.85	3.33	5.32	5.32	3.84	2.89
	대졸 이상	21.34	4.97	9.87	10.87	4.24	5.06

주: <표 3>, <표 4>에서 계산.

<표 6> 프랑스, 미국, 스페인의 남성 청년 실업률과 장년 실업률의 비교

(단위 : %)

	차 이			비 율		
	프랑스	미국	스페인	프랑스	미국	스페인
중졸 이하	17	6.6	25.5	2.57	1.6	2.36
고졸	9.05	3.42	20.6	2.72	1.68	2.33
대졸 이상	4.7	0.9	41.6	2.42	1.4	4.74

자료: Saint-Paul(2000), 프랑스는 1990년, 미국은 1989년, 스페인은 1994년.

1986년부터 1996년 사이 청년 실업률과 장년 실업률의 격차는 절대값 측면에서는 줄어들었지만 상대비율 측면에서는 늘어났다. 전체적으로 실업률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청년 실업률과 장년 실업률의 격차 수준은 줄어들었지만 상대적으로 장년층의 실업률이 더 빨리 하락하여 청년층과의 상대적 격차는 더 늘어난 것이다. 이와 반대로 1996년과 2006년 사이에는 절대값 측면에서의 격차는 소폭 늘어났지만 상대비율 측면에서는 격차가 줄어들었다. 전체적으로 실업률 수준이 높아지면서 절대값 격차는 늘어났지만 장년층의 실업률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빨랐다고 볼 수 있다. 흥미로운 현상은 대졸 이상자의 경우 1996년과 2006년 사이에 실업률의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청년층 대졸자의 실업률은 소폭 감소하였고 장년층 대졸자의 실업률은 소폭 늘어났다.

Saint-Paul(2000)에 따르면 미국은 프랑스나 스페인에 비해 청년층과 장년층의 실업률 차이가 크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층 실업률/장년층 실업률)로 계산된 상대비율로 실업률 차이를 비교해 보면 스페인과 유사하며, (청년층 실업률-장년층 실업률)로 계산된 수준의 격차로 비교해 보면 한국의 실업률 수준은 미국과 유사하다. 특기할 점은 대졸 이상자의 경우 미국은 청년과 장년 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표 7〉 프랑스, 미국, 스페인의 남성 중졸 이하와 고졸 실업률의 비교

(단위 : %)

교육수준	차 이			비 율		
	프랑스	미국	스페인	프랑스	미국	스페인
16~24세	13.5	8.95	8.2	1.94	2.06	1.23
25~49세	5.55	5.77	3.3	2.05	2.15	1.21
50~64세	5.1	3.4	4.4	1.85	2.06	1.48

자료 : Saint-Paul(2000).

〈표 8〉 중졸 이하와 고졸 실업률의 비교

(단위 : %)

	교육수준	차 이			비 율		
		1986	1996	2006	1986	1996	2006
남성	전 체	-2.35	-1.18	-0.67	0.62	0.58	0.85
	16~24세	-6.71	0.99	2.31	0.54	1.13	1.20
	25~49세	-0.90	-0.56	0.63	0.81	0.74	1.15
	50~64세	-1.31	-0.74	0.16	0.59	0.54	1.06
여성	전 체	-3.78	-1.59	-1.79	0.16	0.32	0.51
	16~24세	-4.87	3.06	2.52	0.32	1.68	1.31
	25~49세	-0.68	-0.46	-0.72	0.50	0.61	0.74
	50~64세	-0.34	-0.02	-0.10	0.39	0.95	0.93

주 : <표 3>, <표 4>에서 계산.

10%p 이상의 차이가 나며 따라서 한국의 연령별 노동시장이 미국과 큰 차이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력수준별 실업률의 격차도 국가간에 차이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저학력자의 실업률이 고학력자의 실업률에 비해 높다. <표 7>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데 비해, 스페인의 경우 실업률에 있어서 학력수준간 차이는 두 나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력수준별 실업률 격차를 비교해 보면 앞서 언급한 세 나라의 차이와 비교할 때 학력간 실업률의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장년층에 있어서 중졸 이하와 고졸 실업률의 차이가 프랑스는 5.5%, 미국은 5.77%, 스페인은 3.3%인데 비해, 한국은 2006년 기준으로 남성 0.63%, 여성 -0.72%에 불과하다. 최근 한국의 매우 높은 대학진학률을 감안할 때 중졸과 고졸을 비교하는 것보다 고졸과 대졸을 비교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표 9>에서는 이를 비교하고 있는데 이 경우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을 비교해 보면 남성의 경우 1986년에는 모든 연령층에서 중졸 이하자의 실업률이 고졸자의 실업률보다 더 낮았지만 20년이 지난 후에 모든 연령층에서 중졸 이하자의 실업률이 더 높아졌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에는 여전히 장년층 이상에서 중졸 이하자의 실업률이 더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학력간 실업률 격차와 연령간 실업률 격차의 국가별 패턴의 차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특징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학력자의 실업률이 고학력자에 비해 높으며 대신에 청년층 실업률이 장년층 실업률에 비해 그리 크게 높지는 않다. 이와 달리 스페인은 저학력자의 실업률이 고학력자의 실업률과 비교할 때 그다지 높지 않으면서 대신에 청년층 실업률이 장년층 실업률에 비해 크게 높다. 프랑스의 경우 학력

<표 9> 고졸과 대졸 이상 실업률의 비교

(단위 : %)

	교육수준	차 이			비 율		
		1986	1996	2006	1986	1996	2006
남성	전 체	0.35	0.60	1.84	1.06	1.27	1.66
	16~24세	-15.52	-6.64	-2.60	0.49	0.54	0.81
	25~49세	-0.96	-0.20	1.48	0.83	0.92	1.53
	50~64세	1.03	1.16	0.54	1.47	3.50	1.24
여성	전 체	-4.24	-0.05	0.19	0.52	0.98	1.06
	16~24세	-16.29	-2.01	-4.16	0.31	0.69	0.66
	25~49세	-0.81	-0.36	0.39	0.63	0.76	1.16
	50~64세	0.55	0.09	0.70		1.27	1.89

주: <표 3>, <표 4>에서 계산.

간 실업률 격차도 크고 연령층간 실업률 격차도 크다. 미국의 경우 노동시장이 경쟁적이고 내부자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이 낮기 때문에 연령간 격차는 없지만, 높은 개방도와 빠른 숙련편향적 기술변화로 인해 저학력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학력간 실업률 격차가 크다. 이에 비해 스페인과 프랑스와 같은 대륙유럽의 경우 내부자에 대한 고용보호가 높고, 이중노동시장이 발달하여 고용조정이나 임금조정의 부담이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유럽의 높은 최저임금률, 높은 사회보장 수준 그리고 산별 임금교섭 등은 저임금의 임금 경직성을 야기하고 이에 따라 고속런근로자에 비해 저속런근로자의 고용을 저해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프랑스의 경우 미국과 비교할 때 저학력근로자의 실업률이 유난히 더 높지 않은 “놀라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유럽의 경직된 저임금 노동시장이라는 이미지가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예를 들어 만약 저학력이라고 해도 잘 갖추어진 직업훈련체계를 통해 시장숙련을 획득할 수 있다면 노동시장에서 충분히 수요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공식교육만이 아니라 직업훈련체계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한국을 평가해 보면 한국의 경우 프랑스와 스페인에서처럼 연령간 실업률 격차가 매우 심각하여 연령을 매개로 한 이중노동시장의 문제가 유럽과 마찬가지로 심각하게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학력간 실업률 격차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저학력, 저숙련 노동에 대한 풍부한 수요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오면서 전연령대에서 빠르게 고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 속도는 특히 남성에서 빠르다는 점, 이에 비해 직업훈련체계는 여전히 미발달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한국 노동시장에서 저숙련 노동시장의 실업문제가 심화될 위험이 존재한다. [11]

### <참고문헌>

Cohen et al.(1997), “French Unemployment: A Transatlantic Perspective”, *Economic Policy* 12(25).

Saint-Paul(2000), “Flexibility vs. Rigidity: Does Spain have the worst of both Worlds?”, IZA DP No.144.